

기획

7



후마 교양과목 대부분이 상대평가로 운영돼 학생들은 제한된 A학점 비율 안에서 성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대학주보 DB)



2017년 9월 열린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을 위한 학생의견수렴 공청회'에선 교양 절대평가와 P/F제 도입이 논의됐다. (사진=대학주보 DB)

6면에서 계속 →

이 같은 수업에서 일정 비율의 학생을 A학점으로 제한하는 상대평가를 적용할 경우, 교육과정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평가 기준이 추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이 모여 하모니를 이루는 예술 교과에서도 상대평가가 이뤄진다. 2023학년도에 '합창의 재발견'을 수강했던 고나현(정치외교학 2021) 씨는 "모두의 학점을 아는 건 아니지만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같은 노래를 불렀던 팀원끼리 서로 학점이 달라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절대평가' 공감대는 있지만 선풍은 도입 안 된다는 주장도

절대평가를 바라는 서울캠 후마 김진해 부학장은 "상대평가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건 학생을 선발할 때"라며 "대학 교육 영역에선 상대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교육학에서 의미하는 절대평가는 학생들이 설정된 교육 목표나 기준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보통 생각하는 절대평가와 달리 학점 자체가 없다. 절대평가의 학술적 의미부터 짚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는 김 부학장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서울캠에서 글쓰기 교과를 가르

치는 고인환 교수 역시 교양교육은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교수는 "학점 인플레이션과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보다는 교육의 목적에 맞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풍은 절대평가 도입은 안 된다는 입장의 국제캠 후마 학장을 지냈던 김성수 교무처장은 학점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 특히 비전임 교원은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평가 시행 시, 후한 학점을 주는 경향이 높다. 그런 흐름에서 받은 높은 학점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교무처장은 "평가가 의미 없다면 학생의 수업 태도는 좋지 않아진다"며 "체대로 된 수업 운영을 위해서라도 평가는 객관화가 되는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캠 과학교과 김성 PD교수는 "코로나19 시절의 절대평가는 학점별 성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아니고, 학점 인플레이션도 있었다"며 "방향은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만 확실한 기준안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캠에서 '인간의가치탐색'을 가르치는 고봉준 교수는 "상대평가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평가와 Pass/Fail제도 역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평가 점수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부터 없애야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금처럼 이상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인환 교수 역시 "시간 강사들은 강의평가 점수가 낮으면 잘리기 때문에 학점을 잘 주게 되고,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안 '역량평가' 주입식 강의 문제는 우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외에 꾸준히 언급되는 것이 역량평가다. 역량평가는 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 등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학습능력을 학생이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학기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만 학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수가 지속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기록하면서 평가하게 된다. "차라리 역량평가가 낫지 않겠냐"는 국제캠 김 교무처장은 "그동안 역량평가를 못했던 이유는 기업에서 학생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읽는 것보다 숫자로 나오는 학점만 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과목마다 구체적인 역량평가를 기술해두면 AI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역량평가가 옳긴 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캠 후마 김 부학장은 "역량평가가 좋지만 당장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역량평가야말로 확실한 준비가 뒷받침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역량평가는 교양이 아닌 전공에서 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학과별 인재상은 명확하지만 교양은 전공에 비해 덜 명확하기 때문이다. 김 교무처장은 "역량평가 역시 교양교육 교과목이 많은 우리학교 환경에선 어렵다"며 마찬

가지로 역량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교수의 일반적 강의가 주가 되는 현재 후마 대부분의 강의법 역시 역량평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교수 혼자서 많은 수의 학생을 상대하고 있는 현재 구조에선 현실적으로 학생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해 평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우리신문의 설문조사에서 2학년 이상 재학생들 중 '후마 수업의 문제점으로 교수·과목별 편차가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65.2%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역량평가를 시행한들 성적의 객관성을 보장하긴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는 양캠 후마 갈등 이론법적 사고 벗어난 '소통' 절실

현실적으로 역량평가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캠에선 후마의 교육철학과 교양수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제캠에선 평가방식의 변화가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캠퍼스 간 충분한 논의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결국 절대평가 도입 여부만으로 논의를 끝낼 수 없다. 후마가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교육의 성취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같은 논의가 15년 동안 반복됐음에도 양캠이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데 있다.

후마의 평가방식 논쟁은 결국 후마가 어떤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간다.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나 결과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양 캠퍼스가 후마의 교육철학을 공유하고, 그 철학을 실제 교육과 평가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지금의 논쟁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만을 비교하는 이론법적인 구조다. 다만 평가방식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단순히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가운데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한가에 있지 않다. 더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 양캠이 소통해야 한다.

1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평가방식 논의는 후마 내부의 '소통과 거버넌스' 문제를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평가방식에 대한 양캠의 이견이 왜 15년이 지나면서도 좁혀지지 않았는지, 후마의 주요 정책은 어떤 구조에서 결정되고 있는지는 다음 회차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